

# 겨울방학, 경주서 문화 체험을

## 가족과 함께하는 신라문화체험장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체험학습여행으로 불교도 경주를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신라문화원에서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신라문화체험장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니라 몸으로 즐기면서 천년고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 경주 체험관광의 최적지

천마총과 첨성대 인근에 자리한 진각종경주 흥원심인당과 함께 자리한 신라문화원의 신라문화체험장은 문화재 관람만으로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찾아보면 좋은 곳이다.

최근 일반인이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중앙문을 개방하고 마당을 공원처럼 꾸며 일반인들도 맘껏 들어올 수 있는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300여 평의 실내에 조성된 신라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러 동물들의 탈과 백등 만들기, 탁본, 칼라 클레이로 와당만들기, 금관체험, 비누만들기, 한지 부채 만들기 등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 하다.

또한 첨성대, 석가탑, 황남대총, 석굴암 등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볼록체험을 하며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신라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문화재 만들고 놀면서 배우고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연 만들기 체험도 겨울철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선덕여왕 시절 비담의 난 당시 김유신의 재치로 연에 불을 매달아 날려 군 사들의 사기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전해오는 데서 연유한다.

### 불교 대표 사회적기업 '우뚝'

2008년 3월 신라문화원을 모범인으로 개장한 신라문화체험장은 천마총, 첨성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체험 프로그램도 저렴한 비용으로 경주만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체험물을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라문화체험장은 2012년 문화재 활용한 대표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체험형 관광을 선도하고 문화재모양 초코렛, 비누만들기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공하면서 30명의 고용창출까지 이끌어냈기에 얻은 쾌거다.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실내라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도 많이 유치해 앞으로 경주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054)777-1950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혜암 스님 12주기 추모다례제

## 12월 19일 해인사서

조계종 제10대 총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12주기 추모제가 12월 19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과 문도스님들은 일찍 혜암 스님이 주석했던 미소굴을 참배한 후 비암 부도전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님의 열반12주기를 맞이하여 다례를 모셨다.

이 자리에는 혜암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무영 스님들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석가모니를 정진히 올려피린 대적광전에서 혜암문도회스님 해인사 소임스님 각말사 감원스님 대종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의 헌다, 헌향, 헌화의 예를 시작으로 문도대표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전 총정 혜암 스님 추모다례제 장면.

참배로 이어졌다. 대종들은 혜암대종사의 육성법어로 "열반과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는 짧은 법어를 들었다.

혜암당 성관대종사는 1920년 탄생 1946년 27세에 해인사에서 입산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주지와 종단의 원로의원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해인총림 제6대 방장 과제10대 총정을 지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조옥자 신임회장 취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2월 18일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대, 제5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5대 조옥자(사진) 씨가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순 전 회장,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장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은희 회장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했다.

조옥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김윤순 전 회장의 꿈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연합합창단의 모델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산 불교음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음성포교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김윤순 회장이 임기동안 보여준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치하하고, 새로 취임하는 조옥자 신임회장은 1998년 범어사 합창단에 들어와 2012년 범어사 합창단장으로 활동해온 능력을 합창단연합회의 발전에 쏟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대선불교조계종 15일 송년법회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의 캐치프레이즈로 2013년도 종무결산 및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능) 발전을 위한 송년법회를 12월 15일 대구 효목동 '짜라이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은 총무부장 보각 스님 사회로 진행됐다. 교육부장의 상축에 이어 내외빈 소개, 각 사암 주지스님 임명장 수여, 김재중 대선불교조계종 신임 중앙신도회



대선불교조계종이 12월 15일 송년법회를 하고 있다.

장 임명장 수여, 각사암별 표창장 수여가 있고 감사원장 스님의 2013년 종결산 감사보고가 있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절집 환경 이래도 괜찮습니까”

예로부터 사찰은 지극히 청정한 곳으로 인식되어왔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내·외를 청소하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과 집기들을 제대로 정리 정돈하는 것은 바로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이 곧 사찰을 청정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비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비단 마음을 비우라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이 말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비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듯이 사찰의 환경을 비우지 못하면 사찰의 청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찰은 수행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사찰환경을 적당히 수준으로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찰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도구나 집기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살림이 큰 사찰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사찰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여 심지어는 전각 주변공간까지 이것저것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규모가 큰 사찰이라고 해서 청정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사찰의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치우 공간을 비운 까닭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조

화를 이루지 않는 것들을 함께 두지 않고, 잘 정리정돈해서 환경이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뒤섞여 있거나 쓰임새가 다른 것들이 함께 놓여있을 때에는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들이라 하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고 청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사찰환경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그 사찰의 불자들이 대상으로 해서 사찰환경을 진단해보기를 권한다. 현재 사찰이 가진 청정성 점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평가는 공간별로 또는 내용별로 5점 척도를 만들어 점수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체로 사찰의 환경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사찰이 무엇 때문에 청정하지, 무엇 때문에 청정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청정한 것은 보다 더 강조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지속적으로 사찰환경이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끝>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환경의 청정성은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은 경기도 비사찰 모습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아, 참 사랑(인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의 본질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자비)' 그 자체이다.  
**생명과 '나(에고·我相)'의 탐구를 통한 행복성취의 기술**

**사랑학 개론**  
관조를 통한 영혼의 치유 셀프힐링Self healing

배재국 지음 4\*6판 | 188쪽 | 355쪽 | 12,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타인과 세상에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되돌아온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지혜와 치유의 '인과법칙' 이야기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은 배움 속에 있다!”**  
역지사지 스토리텔링으로 '의식과 삶의 변화' 이루는 자기개발 소설

**배움의 법칙**  
김주수 지음 4\*6판 | 2도라 | 272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공감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